

전문가 진단을 통한 체질별 건강수준과 설문결과의 연관성 연구

이재철 · 이해정 · 이유정 · 김근호 · 김상혁 · 이시우 · 장은수 ·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Relations between the Questionnaire and Health State in each Sasang Constitution based on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diagnoses

Jae-Chul Lee, Hae-Jung Lee, Yu-Jung Lee, Keun-Ho Kim, Sang-Hyuk Kim, Si-Woo Lee, Eun-Su Jang, Jong-Yeol Ki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Objectives

We report the relation between the questionnaire and the health state on the Sasang Constitution.

2. Methods

We carried out a clinical test, in which 2 Oriental medical doctors participated to diagnose health state in each Sasang Constitution with 239 subject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3 subgroups, which are allocated to healthy group, poor health group and disease group.

3. Results

We extracted 4 questions for Taeumin, 5 questions for Soyangin and 3 questions for Soeumin from the whole 98 questions respectively. Soyangin and Taeumin share a same question that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by health statu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we used a Chi-square test.

As a result, we found out that Taeumin showed different distributions of answers in direct/indirect characteristic, perspiration, frequent urination, regular defecation. According to the health status Soyangin showed the different distribution of the answers in color of urination, frequent urination, mouth dryness, abnormal perspiration, discomfort of head. Soeumin showed the different distribution of the answers in cold and chilly feel of abdomen, digestion status and cause of digestion problems when body condition gets worse.

4. Conclusions

This is the first work which reports the relatedness between Questionnaire and Health State in each Sasang Constitutions by an objective clinical test. We found out that several questions have different distributions by health status in each Sasang Constitution. These extracted questions are categorized not only by Wansilmoobyung(완실무병), but also by other symptoms and body status.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Health State

• 접수일 2011년 02월 10일; 심사일 2011년 02월 10일;
승인일 2010년 03월 02일
• 교신저자 : 김종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Tel : 042-868-9384 Fax : 042-868-9480
E-mail : crewera@kiom.re.kr

* 연구비 지원기관 : 지식경제부 고령친화형 사상체질기반 진단/치료기 개발 과제 중 오감형 한방 진단/치료 컨텐츠 개발(10028438)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I. 緒 論

사상의학은 증치의학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체질 유형의 개념을 도입한 의학이다.¹ 사상의학은 동일한 증상일지라도 체질에 따라서 다른 병리 기전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체질별로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도 다르다.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命脈實數를 제시하였는데 신선·청량·쾌경·강녕·외감·내상·뇌육·위경 8가지로 구별된다. 이는 偏大之臟에 대한 偏小之臟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여 건강인과 비건강인의 상태를 척도로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다.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에서는 各體質正氣를 의미하는 保命之主를 제시하여 이의 정상적 기능 여부에 따라 건강상태와 질병의 輕重危急이 달라진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존 의학에서는 볼 수 없는 사상의학만의 독특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¹

또한 『東醫壽世保元』에서 完實無病을 통해 병증을 통해 체질별 건강을 판단하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체질별로 건강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문헌에 근거한 이해가 중심이었고 설문을 활용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은수^{2,3,4} 등은 THI를, 백영화⁵ 등은 PWI-SF를 활용하여 체질별로 건강수준 및 건강행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존 공인된 건강수준 설문지와 사상체질간의 연관성을 연구한 것이었으며, 사상의학 전문가가 평가한 체질별 건강수준에 따른 설문 결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가 평가한 체질별 건강수준에 따른 설문 결과의 연관성 연구를 하여 일정한 결과를 하였기에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및 對象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남녀 2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사상체질의학 전문의 2명이 독립적으로 체질 및 체질별 건강수준을 진단하여 일치하는 진단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체질별 건강수준은 건강군/반건강군/질병군으로 나누었으며, 전문의의 판단에 근거하여 즉시 혹은 1개월 내에 치료가 필요하면 반건강군, 그렇지 않으면 건강군으로 규정하였다. 질병군은 반건강군 중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질병군의 경우 전주 모병원의 외래 및 입원 중인 중풍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험자는 총 63명이고 그 중 임상시험실을 방문하여 52명이 설문지 응답을 완료하였다. 8명은 전문의의 체질 진단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2명은 피험자 본인이 중도에 참여의사를 철회하였으며, 1명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된 52명의 진료과는 6명이 체질의학과, 22명이 한방2 내과, 8명이 한방신경정신과, 16명이 초진이었다.

통계분석 방법은 체질별로 나누어 건강수준과 문항 항목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χ^2) Test)를 수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5%로 하였으며, SPSS 14.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회 연구원 IRB (I-1004/001-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Female	Healthy group	9	17	14	40
	Poor health group	30	19	12	61
	Disease group	5	15	4	24
	Total	44	51	30	125
Male	Healthy group	15	14	25	54
	Poor health group	20	5	7	32
	Disease group	12	4	12	28
	Total	47	23	44	114
Total		91	74	74	239

의 심의 및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WKUJJ-IRB2010-0001)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III. 結果 및 考察

대상자가 응답한 설문지는 성격설문 I-II 각 15 문항, 식사 5·소화 12·땀 8·대변 18·소변 9·한열 16·음수 3·수면 4문항을 포함한 소증 설문이 75문항, 병증 설문 10 문항, 질병 설문 12문항, 부인과 설문 9문항, 기타 건강 관련 설문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은 143문항이다.

그 중 체질별로 나누어 건강수준과 문항의 패턴과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한의학적으로 해석이 유의한 문항 수는 태음인 4개, 소양인 5개, 소음인 3개이며 태음인과 소양인은 1개로 추출되었다.

태음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건강수준별로 응답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2)

반건강근, 질병군이 성격이 직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건강군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는 건강수준이

Table 2 Questions Have Different Distributions by Health State of Taeumim

		Character			Total	χ^2	p-value
		Direct	Moderate	Indirect			
Health State	Healthy group	N	8	13	3	11.009	0.026
		%	33.3%	54.2%	12.5%		
	Poor health group	N	24	12	14		
		%	48.0%	24.0%	28.0%		
	Disease group	N	11	2	4		
		%	64.7%	11.8%	23.5%		
Total	N	43	27	21			
	%	47.3%	29.7%	23.1%			
		Sweat			Total	χ^2	p-value
		Excessive	Moderate	Less, No			
Health State	Healthy group	N	7	13	4	20.869	3.36E-04
		%	29.2%	54.2%	16.7%		
	poor health group	N	14	19	17		
		%	28.0%	38.0%	34.0%		
	Disease group	N	14	3	0		
		%	82.4%	17.6%	0.0%		
Total	N	35	35	21			
	%	38.5%	38.5%	23.1%			
		Habit of Defecation		Total	χ^2	p-value	
		Regular	Not regular				
Health State	Healthy group	N	21	3	7.178	0.028	
		%	87.5%	12.5%			
	Poor health group	N	28	22			
		%	56.0%	44.0%			
	Disease group	N	11	6			
		%	64.7%	35.3%			
Total	N	60	31				
	%	65.9%	34.1%				
		Frequent Urination			Total	χ^2	p-value
		Excessive	Moderate	Less, no			
Health State	Healthy group	N	3	6	15	15.659	0.004
		%	12.5%	25.0%	62.5%		
	Poor health group	N	15	16	19		
		%	30.0%	32.0%	38.0%		
	Disease group	N	10	6	1		
		%	58.8%	35.3%	5.9%		
Total	N	28	28	35			
	%	30.8%	30.8%	38.5%			

악화되었을 때 裏熱로 인한 熱象으로 인해 원래 태음인의 느긋한 性情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한의 정도는 태음인의 완실무병 지표로서 반건강군이 땀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 많았다. 대변이 규칙적인지의 여부도 건강군보다 반건강,

Table 3 Questions Have Different Distributions by Health State of Soyangin

		Color of Urine			Total	χ^2	p-value	
		Clear	Not Clear					
Health State	Healthy group	N	31	8	39	6.153	0.046	
		%	79.5%	20.5%	100.0%			
	Poor health group	N	9	10	19			
		%	47.4%	52.6%	100.0%			
Disease group	N	11	5	16				
	%	68.8%	31.3%	100.0%				
Total		N	51	23	74			
		%	68.9%	31.1%	100.0%			
		Frequent Urination			Total	χ^2	p-value	
		Excessive	Moderate	Less, No				
Health State	Healthy group	N	5	11	23	15.927	0.003	
		%	12.8%	28.2%	59.0%			100.0%
	Poor health group	N	7	8	4			19
		%	36.8%	42.1%	21.1%			100.0%
Disease group	N	8	6	2	16			
	%	50.0%	37.5%	12.5%	100.0%			
Total		N	20	25	29	74		
		%	27.0%	33.8%	39.2%	100.0%		
		Head		Total	χ^2	p-value		
		No discomfort	Discomfort					
Health State	Healthy group	N	36	3	39	25.551	2.830E-06	
		%	92.3%	7.7%	100.0%			
	Poor health group	N	8	11	19			
		%	42.1%	57.9%	100.0%			
Disease group	N	5	11	16				
	%	31.3%	68.8%	100.0%				
Total		N	49	25	74			
		%	66.2%	33.8%	100.0%			
		Mouth Dryness		Total	χ^2	p-value		
		Discomfort	No discomfort					
Health State	Healthy group	N	7	32	39	8.206	0.017	
		%	17.9%	82.1%	100.0%			
	Poor health group	N	10	9	19			
		%	52.6%	47.4%	100.0%			
Disease group	N	7	9	16				
	%	43.8%	56.3%	100.0%				
Total		N	24	50	74			
		%	32.4%	67.6%	100.0%			
		Abnormal Perspiration		Total	χ^2	p-value		
		No	Yes					
Health State	Healthy group	N	32	7	39	10.924	0.004	
		%	82.1%	17.9%	100.0%			
	Poor health group	N	8	11	19			
		%	42.1%	57.9%	100.0%			
Disease group	N	8	8	16				
	%	50.0%	50.0%	100.0%				
Total		N	48	26	74			
		%	64.9%	35.1%	100.0%			

질병군이 불규칙이라 대답한 비율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태음인이 裏證으로 인해 대변 배설 기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변을 자주보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반건강군, 질병군이 소변을 자주 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액대사의 문제로 인하여 陰血이 耗竭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양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건강수준별로 응답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3)

소양인의 건강수준과 연관된 증상은 소변 및 頭部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많았다. 반건강군이 소변색이 맑지 않다고 응답 했는데, 소변색이 맑은 것은 寒證, 그렇지 못한 것은 熱證을 의미하며 소양인의 병증이 대부분 火熱을 위주로 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소변을 자주보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태음인과 마

찬가지로 소양인도 반건강군, 질병군이 소변을 자주 본다고 응답하였다. 태음인이 기액대사로 인한 문제임에 비해 소양인은 腎小한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건강군과 질병군은 건강군에 비해 머리에 불편이 있다고 응답을 많이 하였으며, 입과 목에 입마름증 또한 반건강군과 질병군의 응답이 많았다. 이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소양인의 두통은 병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증상⁷으로 제시한 것과, 소양인의 건강이 안 좋아질 경우 胸膈에 큰 불이 난 것과 같고, 눈코입 등에 증상이 있다⁷고 언급한 것과 일치한다.

반건강군과 질병군에서 식은 땀 등 비정상적인 발한이 있다고 응답 했는데, 소양인의 이러한 발한은 裏熱의 병기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소음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건강수준별로 응답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설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 4)

Table 4 Questions Have Different Distributions by Health State of Soeumin

		Cold and chilly abdomen			Total	χ^2	p-value	
		Severe	Moderate	No				
Health State	Healthy group	N 7	10	14	31	12.602	0.013	
		% 22.6%	32.3%	45.2%	100.0%			
	Poor health group	N 10	11	3	24			
		% 41.7%	45.8%	12.5%	100.0%			
Disease group	N 4	3	12	19				
	% 21.1%	15.8%	63.2%	100.0%				
Total		N 21	24	29	74			
		% 28.4%	32.4%	39.2%	100.0%			
		Digestion		Total	χ^2	p-value		
		Well	Not well					
Health State	Healthy group	N 29	2	31	11.452	0.003		
		% 93.5%	6.5%	100.0%				
	Poor health group	N 13	11	24				
		% 54.2%	45.8%	100.0%				
Disease group	N 14	5	19					
	% 73.7%	26.3%	100.0%					
Total		N 56	18	74				
		% 75.7%	24.3%	100.0%				
		Digestion state when body condition gets worse		Total	χ^2	p-value		
		Have digestion problem	No digestion problem					
Health State	Healthy group	N 12	19	31	11.384	0.003		
		% 38.7%	61.3%	100.0%				
	Poor health group	N 17	7	24				
		% 70.8%	29.2%	100.0%				
Disease group	N 4	15	19					
	% 21.1%	78.9%	100.0%					
Total		N 33	41	74				
		% 44.6%	55.4%	100.0%				

한열증상에서 반건강군이 배가 차갑고 서늘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소음인의 保命之主인 陽暖之氣⁸가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화가 잘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설문에서 반건강군과 질병군이 소화가 잘 안된다고 많이 응답 했는데, 이는 소음인의 완실무병 지표인 飲食善化가 잘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소화문제가 생기는 지에 대한 설문에서 반건강군의 응답이 많았다.

한편, 질병군이 반건강군에 비해 양호한 건강지표에 응답이 많은 경우가 있었다. 태음인 질병군이 많이 많다고 많이 응답한 것과 소양인 질병군이 반건강군에 비해 소변색이 맑다고 많이 응답한 것, 소음인 반건강군이 질병군보다 배가 차갑고 서늘한 편이라고 많이 응답한 것,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소화문제가 발생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질병군의 응답이 반건강군보다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질병군이 발병 초기가 아니고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므로 이로 인해 질병군의 건강지표가 반건강군에 비해 양호한 건강지표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IV. 結 論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건강군/반건강군/질병군이 응답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태음인은 성격의 직접/간접 여부 발한 정도·소변빈도·규칙적인 대변, 소양인은 소변 색·소변빈도·입 마름·비정상적인 발한여부·머리 불편 여부, 소음인은 배가 차가운 지와 소화 잘되는지의 여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소화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건강군 간에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질병 이전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객관적 도구와 체질별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질별 완실무병에 관련된 4대 소증 외에도 체질별 건강수준에 따라 응답 빈도가 다른 문항이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설문 외에도 望聞問切 영역별로 객관적 측정에 기반을 둔 건강수준지표를 찾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안면의 色澤, 음성의 高低清濁, 피부와 맥에

서의 변화 등을 건강상태에 따라 측정하고 분석하는 향후 연구가 활발히 전개된다면, 체질건강수준 개념의 정착과 실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지식경제부 고령친화형 사상체질기반 진단치료기 개발 과제 중 오감형 한방 진단치료 콘텐츠즈 개발(10028438)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VI. 參 考 文 獻

1.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집문당. 2004.
2. Jang ES, Baek YH, Kim HS, Lee SW. A Study on the Health Condi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7;13(3):133-141. (Korean)
3. Jang ES, Kim HS, Yoo JH, Baek YH, Oh SG, Lee SW.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Sasang Health Index and THI(Todai Health Index) Score by Sasang Constitutions.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2):43-52. (Korean)
4. Jang ES, Baek YH, Lee HJ, Lee SW. The Preliminary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State and Practice of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9;15(2):111-117. (Korean)
5. Baek YH, Kim HS, Jeong JW, Ryu JH, Lee SW, Jang ES. The Research on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and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8;14(3):65-71. (Korean)
6. 이봉고, 박영배, 김태희. 한방진단학. 서울:성보사. 2009:18-19.
7. 이제마. 개정판 원문대역 『東醫壽世保元』. 서울:여강출판사. 2003.
8. 이제마 저, 박성식 역.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 서울:집문당. 2003.

